

CD금리보다 싼 코픽스 대출 신규주택담보로 제한

# 전세·신용·中企 대출 고객 불이익

### 은행들 “금리수익 줄어든다” 판매 꺼려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 금리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상품이 신규 주택담보 대출로 제한돼 전세·신용대출 이용고객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CD(양도성 예금증서)보다 최저 0.62%포인트를 낮은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코픽스 대출과 CD 대출 간 연간 이자액 차이가 124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출시된 코픽스 대출이 CD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때문에 도입 6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코픽스 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연 3.76~5.16%로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대출 금리 4.38~5.68%에 비해 최저 금리가 0.62%포인트나 낮다.

그러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코픽스 대출 판매에 소극적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분양 관련 집단대출에만 코픽스 대출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에는 코픽스 대출

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에 코픽스 대출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존 CD 대출에서 코픽스 대출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부여하고 있다.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코픽스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을 오는 10월29일까지로 종전보다 1~2개월 연장했지만, 전세대출자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대출 전환 제한 등으로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273조2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그치고 있다.

▲코픽스 = 전국은행연합회가 2월16일 내놓은 은행의 새로운 대출기준금리. 국내 주요은행 주요조달자금의 총평균금리를 말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PIX)의 약칭이다.

또 신규취급액 기준대출 비중이 지나쳐 금리변동 위험 완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코픽스연동대출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의 비중은 89.9%에 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상품을 정하는 것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연합회가 간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光銀 CEO와 시네마 데이트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롯데시네마에서 'CEO와 함께하는 시네마 데이트'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는 감사·기쁨경연을 펼치고 있는 송 행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더블찬스 정기예금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 16~30일 코스피200 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51회'를 한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1년제 정기예금으로 코스피200 지수에 따라 최저 0%(원금 보장)에서 최고 연 15.6%를 제공하고, 만기 지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시 연 3.0%로 확

정되는 녹아웃(Knock-out)형이다. 가입대상 제한은 없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녹아웃형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투자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정해진 기준지수 이상 상승할 경우 계약당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김치 홍콩 간다 '예담은' 떡도 수출

광주시는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홍콩 신세계 식품공사와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김치와 떡 판로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김치인 '감칠매기'와 떡 브랜드 '예담은'은 홍콩 신세계 식품공사와 5만달러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계약한 물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는 식품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설치해 무료 시식 행사를 열고 13일에는 현지 구매자와 언론인, 유통판매업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수출 설명회, 김치 담그기와 떡 만들기 등 시연 행사를 열었다.

## 10곳중 3곳 적자가구...6년來 최대

### 올 2분기 28.1%...세금 등 비소비지출 크게 늘어

경기회복으로 올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적자 가구의 비중은 늘었다.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가구가 더 많아진 것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올해 2분기에 28.1%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보다 0.3%포인트 높았으며 2분기 기준으로 2004년 2분기(28.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29.5%에서

2004년 28.2%, 2005년 28.0%, 2006년 27.7%, 2007년 27.6%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2008년 27.7%, 2009년 27.8% 등으로 27%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다시 28%대로 반등했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경우로 올해 2분기의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비소비지출(세금, 연금, 사회보장, 이차비용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분기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했으나 비소비지출이 11.5%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6.8%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별 적자가구 비율을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10.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에서 0.7%포인트 증가했으며 2005년 2분기(11.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57.4%로 작년 동기의 58.3%보다 0.9%포인트 낮아졌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금융연구원은 15일 상반기 2.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3.2%로 높아져 물가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이 5.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그러나 상반기 성장률이 지난 4월 예상했던 6.8%를 뛰어넘는 7.6%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성장률

예상치는 4.9%에서 0.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3.2%로 높아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중 심치인 3.0%를 웃돌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으며,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 증시 포커스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주 국내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거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선물 베이스스 약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가락이나 취약한 수급여건은 더 악화됐다.

그러나 주 후반 들어 경기회복 속도 둔화에 따른 반응이 다소 과민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내국인 투자자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일정수준 지수 회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지수 조정이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등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이번 지수 조정을 거칠게 만들었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면,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논란이 이번 지수 조정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이번 지수 조정의 결정적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따라 취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실망이다. 부연 설명을 하

### 코스피 급등팬 저가 매수 바람직

자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해 시장에 경고했다. 버냉키 의장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 발언과 2주 전 베이직에서의 경기회복 속도 둔화 확인, 8월 초에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미국 실업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미국 경기 속도 둔화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정 기간 코스피 지수와 미국 주요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시장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해 우려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 둔화가 양적 완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원자재 등 달러 약세 수혜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이런 현상은 국내증시

에도 소재주나 내수, 금융주가 IT의 반자리를 대신하면서 지수를 반등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미국 금리 결정 후 내려진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실망이 지수 조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수 조정의 결정적 원인이 경기 회복 둔화가 아닌 만큼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며 기존 BOX권으로 회귀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를 때에는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저가매수에 나서는 것이 이번 조정 이후에 있을 장세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대응이 될 전망이다. 긴 호흡에서 IT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며, 소재주나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달러 움직임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권고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Dinner Show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부가세)

예약 및 문의 - 대표전화: 062-228-4000 / 메탈: 062-228-4711-3 (주최: 광주광역시, 후원: 광주대담인투스, 후원: 한국관광공사)

**슬로시리 증도**

제주골프특가 (노약선 행사) 오백남자 - 9월7일, 9월8일

₩29,000원(부가세 27.27%)

구분	1인	2인	3인
9월 7일	₩29,000	₩58,000	₩87,000
9월 8일	₩29,000	₩58,000	₩87,000

문의: 062-228-4000